

당뇨병 교육 영상시대 개막

당뇨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디오로 제작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시판되면서 당뇨병교육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있다. 이는 국내 당뇨병교육자료의 수준이 한단계 발전했다는 교육사적 성과외에 올바른 당뇨병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대중적인 보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최근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자연히 비디오 기기를 비롯한 가정용 첨단전자제품이 크게 늘게 되면서 이러한 발전적 사회분위기가 조성케 된 것.

당뇨병 치료에 있어 근간이 되는 교육사업이 이제 상품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판매되면서 혈당측정기, 인슐린, 인슐린주사기 등 당뇨병관련제품 판매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하게 됐다.

당뇨병관련제품의 판매시장은 지속적인 관리를 요하는 당뇨병의 특성상 전망있는 사업영역으로 비교적 큰 시장을 구축해 왔다. 특히 요즘들어 폭발적인 붐을 일으키면서 호황기를 맞고있는 각종 건강관련사업과 함께 향후 더욱 큰 규모의 시장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시판중인 당뇨병

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의 수준은 본래의 제작 의도와 기대수준에 훨씬 못미친다는 지적이 속출하고 있다.

따라서 당뇨병환자를 위한 올바른 교육풍토 조성 및 효과적인 교육성과를 위한 관계자의 자성을 토대로 전면적인 재검토작업이 절실히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기대에 못미친 비디오제작

당뇨병교육자료는 당뇨병교육뿐만 아니라 관리에도 없어서는 안 될 기초항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투자부족과 제작진의 성의, 연구부족으로 근근히 명맥유지만 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각 병원 당뇨교실에서 만든 소책자등 인쇄물이 고작이었으며 그나마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일시적이고 평면적 교육에 그쳐왔던게 사실이다.

이에 반해 미국등 외국의 경우에는 교육성과를 높일 수 있는 치료요법별 컬러판인쇄물, 교육용 카세트테이프, 각종 비디오테



이프등 구체적이고 다양한 교육 자료가 이미 일반화돼있어 우리와 좋은 대조를 이룬다.

국내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의 시발은 지난 90년11월 첫선을 보인 성지문화영상의 당뇨병관리 I, II이다.

이것은 5년여에 걸친 제작기간을 거쳐 서울대학교 내분비내과와 국립의료원 당뇨병 교실의 공동제작으로 완성됐다. 국내 최초의 시도였던만큼 제작기간동안 시행착오도 많아 수회에 걸친 시나리오 수정, 제작사의 도중하차등 여러가지 악조건속에서도 나름대로 큰 의의를 갖고 탄생했다.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민현기박사를 비롯, 이홍규박사, 서문자교수등 당뇨병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 영양사, 간호사등 총 12명.

최초로 선보인 당뇨병비디오 「당뇨병 관리 I, II」

제작시 총지휘를 맡았던 서울의대 민현기교수는 국내 최초의 일반대중을 위한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를 통해 당뇨병에 대한 지식을 확실히하고 당뇨관

당뇨병에 관한 모든 정보를 비디오로 제작한 교육용 비디오테이프가 시판되면서 당뇨병교육이 일대 전환기를 맞고있다. 이는 국내 당뇨병교육자료의 수준이 한단계 발전했다는 교육사적 성과외에 올바른 당뇨병교육의 활성화는 물론 대중적인 보편화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능하다.

리기술의 숙련을 도모해 당뇨병으로 인한 무서운 합병증 예방은 물론 의료비절감도 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당뇨병 관리 I, II는 드라마적 요소를 가미한 시나리오 구성으로 마치 한편의 단막극을 보는 것같은 느낌을 갖게하면서 전체적인 교육내용을 이끌어가는 당뇨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이해도 증진에 비교적 효과적이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방대한 양의 당뇨병지식을 한꺼번에 전달하려는 욕심이 앞서 너무나 개괄적이라는 비판 또한 받고있다. 2개의 테이프에는 당뇨병의 이해, 식사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합병증에 대한 내용의 수록은 물론 환자들이 일반적으로 궁금해하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과 답변도 들어있어 세심한 배려의 흔적이 보인다. 반면에 당뇨병환자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식사요법의 경우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교육이 절실히 필요한데도 통상적인 실례만 드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내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 제2탄이라고

할 수 있는 알기쉬운 당뇨병 I, II도 예외가 아니다.

알기쉬운 당뇨병 I, II는 대한당뇨병학회가 제작, 지난해부터 그린메디칼에서 의료상을 통해 판매중이다. 대한당뇨병학회(회장 허갑범박사)는 보다 완성도 높은 당뇨병교육 영상자료의 제작 필요성을 절감, 학회산하에 VTR제작위원회를 구성하고 제작에 착수한지 2년만에 드디어 알기쉬운 당뇨병 I, II라는 영상교육자료를 만들어냈다.

좀더 나은 비디오를 제작한 더더니

알기쉬운 당뇨병 I, II는 2개의 테이프에 당뇨병의 원인, 증상, 진단부터 합병증, 식사·운동요법, 약물과 인슐린, 당뇨병 환자의 개인위생과 교육등이 실려있다. 또 식사요법등 몇가지 주제를 선정, 좌담을 진행함으로써 의학적 정보전달과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고.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은 총 28명으로 당뇨병관리 I, II보다 배가 넘는 많은 수의 인원이 출연하고 있다. 이들은 전국 각 병

당뇨병교육자료는 그동안 투자부족과 제작진의 성의, 연구부족으로 근근히 명맥유지만 땀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부분 각 병원 당뇨교실에서 만든 소책자등 인쇄물이 고작이었으며 그나마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일시적이고 평면적 교육에 그쳐왔던게 사실이다.

원에서 당뇨병치료에 힘쓰고 있는 우수한 당뇨병전문의들로 각자 분야별로 당뇨병 예방과 치료에 따른 최신지견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당뇨병학회 허갑범 회장은 알기쉬운 당뇨병 I, II가 당뇨병분야 전문가들의 참여로 당뇨인 뿐만아니라 보호자, 일반인, 당뇨교육자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혼자서 배우고 실체를 익힐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고 전제한 뒤 알기쉬운 당뇨병을 통해 당황속의 낭패와 무지에 의한 치료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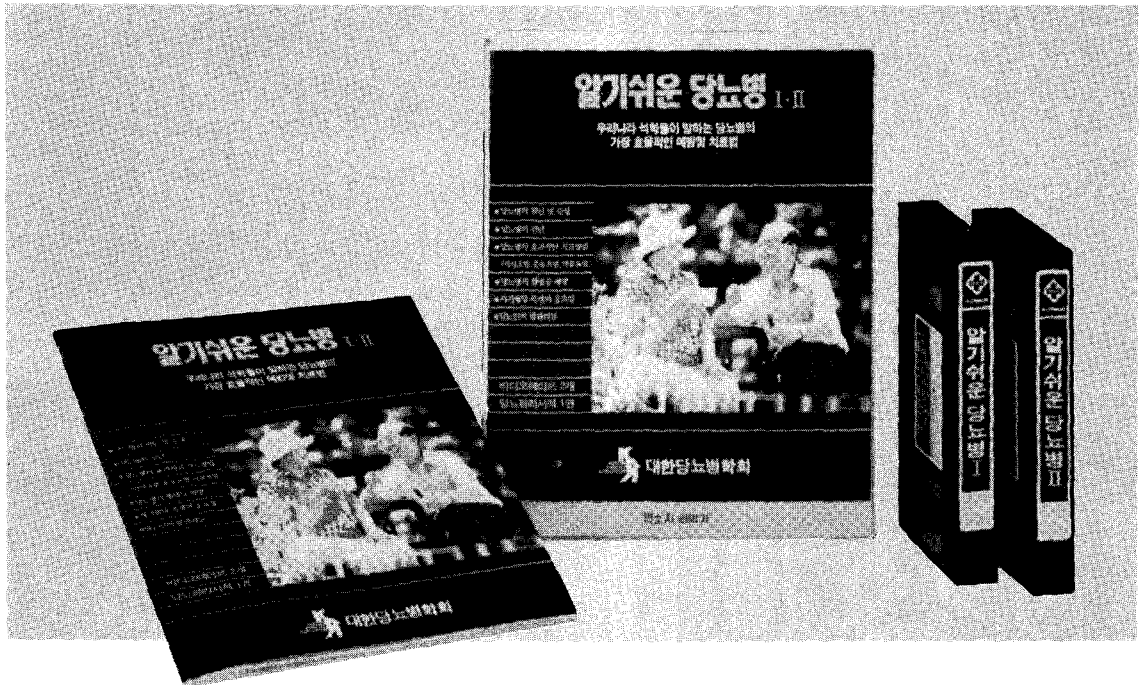
패를 당당히 막아낼 이론과 실재를 느끼고 알게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비디오는 국내 저명한 당뇨병의학자 28명의 대거출연이라는 획기성이 오히려 내용면에서 깊이있고 안정된 흐름을 방해하는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다.

전원이 의사들이 이들 출연진들은 마치 강의실에서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듯 빠른 템포로 설명을 하기에 급급하고 설새없이 바뀌는 화면은 28명을 클로즈업 시키기에 분주하기만 하다. 결국 당뇨병교육 비디오 테이프가 기존의 인쇄물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활자화된 지식전달에 그치고 만다는 느낌을 떨쳐버리기가 어렵다.

이는 당뇨병교육이 환자의 생활패턴을 교정하는 생활전반에 걸친 총체적교육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영상교육이 주는 효과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문제점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식사요법이나 운동요법은 이리이러한 것이 있다는 식의 수박겉핥기에 불과하고 반복교육의 욕구마저 반감시키고 있는 것.



이 비디오를 구입해 집에서 보았다는 김모씨는 당뇨병환자의 교육보다는 마치 의사들의 선전을 방불케 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무슨말인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어려운 얘기들만 하는 등 비디오테이프가 단지 자신들의 과시와 명분용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개선의 여지 계속 남아있어

이처럼 기존에 나와있는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당뇨

영상자료의 일반 시중판매는 부담스럽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당뇨병교육을 안방극장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향후 당뇨병교육의 질적, 양적 확산이 가능케 됐다.

병 교육형태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를 노정시키고 있다.

향후 당뇨병 발병률은 계속 증가할 것이 전망되고 따라서 이 분야에 대한 연구와 제작요구는 더욱 가중될 것이 틀림없다.

이런 여파로 당뇨병 교육자료 제작을 검토하는 사업체가 생겨나고 있으며 이중 가족계획협회는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위한 적극적인 타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계획협회의 조관제프로듀서에 따르면 내년에 비디오 제작에 착수할 계획이며 이미 영화작가인 송민호씨에 의해 시나리오와 구체적인 콘티까지 완성되었다고. 이번에 제작될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기존의 교육자료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보완, 환자들의 치료욕구를 증대시키고 합병증관리를 촉구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가족계획협회는 그동안 보건사회부 보건기획과의 의뢰로,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등 각종 질병에 대한 교육용 비디오를 제작한데 이어 이번에 당뇨병 비디오를 제작함으로써 대국민 건강 교육사업에 기여해왔다.

그동안 이들 자료들은 주로 보건소, 학교등 단체나 공공기관에 유상 배포됐으며 당뇨병 비디오도 비슷한 경로로 보급될 예정이다.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생활전반에 걸친 모든 것들이 첨단화되면서 당뇨병교육도 구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향모색을 해야하는 시기가 도래했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의 입장과 수준을 충분히 고려한 진정한 교육내용이 아

기존에 나와있는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는 당뇨병 교육형태의 새로운 장을 개척했다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내용면에서는 많은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를 노정시키고 있다.

나라면 구색만 맞춘 대외전시용에 다름없다.

따라서 기존의 당뇨병교육 비디오테이프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시정한 교육자료의 연구,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결해야할 문제점중 보다 저렴한 판매가의 형성은 빼놓을 수 없는 과제중 하나.

현실성 있는 제작 및 판매가 선행돼야

현재 시판중인 당뇨병관리 I, II의 판매가는 5만2천8백원, 알기쉬운 당뇨병 I, II는 4만5천원으로 일반 서민이 선택

구매하기에는 조금 비싼편이다. 영화처럼 일반 비디오테이프 대여점을 통한 대여가 이뤄진다면 더할 나위없겠지만 제작비나 수지타산에 맞지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되고 있어 당분간 요원한 상태.

일부에서는 기존에 나와있는 당뇨병교육용 비디오테이프처럼 전반적인 내용을 총괄해서 다루기보다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 분야별로 시리즈로 제작, 환자 개인에 따라 취사선택하도록 하는 주장이 대두되기도.

당뇨병교육은 이제 이들 비디오테이프의 시판을 계기로 폭넓은 시청각 교육시대가 개막되었다.

영상자료의 일반 시중판매는 부담스럽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당뇨병교육을 안방 극장으로 끌어들이으로써 향후 당뇨병교육의 질적, 양적 확산이 가능케 됐다. 또한 증가일로에 있는 당뇨병 발병률을 낮추고 예방적 측면에서 큰 기여도가 있을 것으로 전망돼 보다 완성도 높은 교육자료에 대한 연구와 제작이 시급히 촉구되고 있다.

〈聞〉